

매일묵상일기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 자료

“사람의 수를 의지한 죄”

2026년 10월 8일(목)

- 찬송 (342)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역대상 21:1~8) 다함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역대상 21:8)

- 묵상자료 인도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 다윗의 통치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한 다윗은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깊은 영적 뒷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센다’는 단어는 수효를 파악하고, 군사력을 헤아리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당연한 행정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행동의 배후에 ‘사탄의 충동’이 있었음을 폭로합니다. 다윗은 왜 갑자기 군사의 숫자를 세고 싶어졌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확인하며 내 안전과 힘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숫자가 채워져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영적 결핍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결과는 이스라엘에 칼을 뿜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에는 47만 명 있습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않았음에도 총 157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다윗은 이 군사력을 든든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이 의지한 군사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국력’이었던 계수가, 하나님의 눈에는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다윗의 신앙은 다시 빛을 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인생이 도달하는 곳은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도,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찢으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는 ‘내 지혜가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음을 인정하고, 내 손의 계산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교만과 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정직한 참회는 결국 놀라운 은혜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의 제사를 드렸던 그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전이 됩니다. 인간의 죄와 미련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그 자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은 다윗이 가장 먼저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기도 인도자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내 손의 힘과 숫자를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영적 교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